



LG 직원들이 LG트윈타워 저층부 공용공간 '커넥트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LG 직원들이 동관 2층에 신규 조성된 '트윈 피트니스'에서 운동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 (주)LG

# 사람·자연·공간 ‘연결’ 초점... “직원들의 워라블 챙겨요”

〈일·삶 융합〉

## LG트윈타워, 37년 만에 새단장

LG그룹 본사인 LG트윈타워가 1987년 완공 이후 처음으로 37년 만에 새 단장했다.

LG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트윈타워에 대해 지난해 2월 리모델링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로비와 아케이드 등 지하 1층~지상 5층 공용공간을 전면 탈바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 면적은 축구장 세 개 크기에 달한다. LG는 새로워진 공간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과 일상의 만족도를 높이고 LG트윈타워만의 ‘공간문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축구장 세 개 크기에 달하는 면적 업무효율성·일상의 만족 높이기 ‘공간 문화’ 창출 등에 전면 탈바꿈

### ◆공간과 공간 ‘연결’ 강화

LG는 새롭게 오픈한 저층부 공용공간을 ‘커넥트윈(Connectwin)’으로 명명했다. 뜻은 ‘트윈타워를 연결한다’는 의미의 ‘Connect Twin’과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위한 연결’을 의미하는 ‘Connect to Win’의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LG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LG트윈타워 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공간과 공간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람과 사람’ 간 연결을 위해 ‘커넥트윈’ 곳곳에 휴식 공간과 미팅 장소를 대폭 늘렸다. 동관과 서관 1층 로비에는 고객사와 미팅이 가능한 회의실이 있고, 카페도 모두 4곳이다.

‘사람과 자연’ 간 연결 강화에도 힘썼다. 1층 로비 공간의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고 지하에 동남향 천장창을 만들어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더했으며, 건물 출입구 앞에는 분수와 야외 정원을 만들어 LG트윈타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을 이용할 때 기존 동선의 효율성이 낮아 불편하다는 임직원들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 계단과 다리 등을 새

로 만들어 ‘공간과 공간’ 간 연결도 강화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1층 로비에서 식음시설이 위치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대형 계단, 동관과 서관의 각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 동관 2층과 서관 2층을 잇는 다리를 만들었다.

동관 2층에는 피트니스센터가, 서관 2층에는 사내부속의원,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피트니스센터와 사내부속의원은 신규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임직원이 가장 선호한 시설이며, 각각 5월과 7월에 운영을 시작한다.

LG는 ‘커넥트윈’을 리모델링하며 건축 디자인 차원에서 과거와 미래의 연결에도 집중했다. 이번 공사는 1980년대 초 LG트윈타워를 설계한 미국의 건축사무소 ‘SOM’이 공간디자인을 다시 맡아 리모델링 이전의 공간이 리모델링 이후 미래에도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했다.

지하 1층 중심부 한 칸에서는 리모델링 이전의 바닥 타일과 새로운 바닥 타일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내달부터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하나의 그림에서 과거의 혁신과 최근의 혁신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렌티큘러 작품이 전시된다. 예를 들어 1966년 금성사(현 LG전자)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흑백 TV와 현재 LG 올레드 TV가 하나의 그림에 같이 담겨 있다.

### ◆임직원 의견 반영 ‘푸드코트’ 구성

LG는 이번 리모델링 과정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뉴트윈 소통 페이지’를 온라인에 개설해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LG트윈타워 구내식당은 기존 6가지 메뉴의 급식형

식당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직원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푸드코트를 추가로 구성하고 외부 브랜드도 입점시켰다. 점심에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20가지가 넘는 메뉴를 제공하며, 샐러드 등 건강식과 셀프라면 코너도 마련됐다.

## 피트니스센터·약국 등 다 갖춰 임직원들 의견 반영한 푸드코트 ‘커넥트 온’으로 스케줄 확인도

LG 임직원들은 트윈타워 전용 모바일 앱 ‘커넥트 온’을 통해 트윈타워의 모든 식음시설 결제를 포함해 ▲예약 ▲웨이팅 등록 ▲음식 포장 요청 ▲회의실 예약 ▲사내부속의원 예약 ▲통근버

스케줄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LG는 트윈타워 재개장에 맞춰 내달 2일부터 3일 동안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심규민, 강재훈 등의 공연을 열고, ‘워크-라이프 블렌딩’을 주제로 외부 강사의 특강을 진행하는 등 임직원 대상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4월 중순에는 지난해 LG트윈스의 29년만 통합우승을 기념하는 ‘LG트윈스 챔피언 팝업 전시’가 계획돼 있다. 이 전시에서는 LG트윈스의 우승 트로피, 한국시리즈 MVP 오지환 선수의 글러브와 볼렉스 시계, 우승 기념주인 아와모리 소주 등을 볼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 직원들이 LG트윈타워 저층부 공용공간 '커넥트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바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정부, 내년까지 50만 軍 장병 경제교육... AI 교육 플랫폼 구축  
▲러 대외정보국 25~27일 방북... “적대세력 정탐모략책동 대처” / 사진 뉴시스

▲육군, 한미연합 KCTC훈련 실시...미해병대 최초 참가  
▲백두산, ‘中 참바이산’으로 유네스코 등재... 정부 “계속 주시”



▲北무기개발 자금조달 관여 개인 6명·기관 2곳 제재 / 사진 뉴시스  
▲건설업계 “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환영... 지방 미분양·PF 정상화 큰 도움